# 예수님만의 소원

## (요17:20~26)

20.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4.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5.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26.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만의 소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소원을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아무도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는 갖지 않는 그런 예수님만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서 나를 향해서 그런 소원을 갖고 계세요, 나조차도 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런 소원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만의 소원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갖고 있는 소원만이라도 최소한 나를 위해 갖고 계신 예수님의 소원에 맞추어질 수 있다면 좋겠고, 그게 맞춰지지 않고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소원인데, 예수님만이 갖고 계신 그 소원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17장의 내용은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공생애를 다 마치시면서 그 공생애의 의미를 다 담아서 하나님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만에 끝나지만 그 의미가 3년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구약성경의 역사 전체가 바로 이 공생애를 예언하고 있었고 가리키고 있었던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생애입니다.
몇 천 년에 걸쳐서 예언되고 있던 공생애가 3년 동안 이루어지고 그 생애가 마쳐지면서 드리는 기도 속에서 주님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냐 라는 게 이 마지막 기도 속에 예수님의 소원이 표현되면서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소원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을 받는 것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소원을 살펴보면 어떤 의아한 점과 아쉬운 점이 있나 하면, 2011년 말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구상에 기독교인이 21억 8천 만 명이라고 합니다.
대략 22억 정도 되는 거죠.
22억 명이 되는 기독교인들이 다 얼굴 모습이 다른 것처럼, 삶의 형편도 다르고, 그러므로 마음속의 소원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22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각자 마음속에 있는 소원 중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예수님의 소원과 일치되는 소원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일까요?
22억 명이 다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이 좀 아쉽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원 쪽으로 반성을 해봅니다.
22억 명이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크게 분류해보면 다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굵직굵직하게 표현해보면, 예를 들어서, 돈 문제, 건강문제,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잘되기를 바라는 것, 이거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22억의 모든 소원을 다 포함시킬 수 있는 항목이 단 하나도 그 비슷한 것도 예수님의 소원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돈 잘 벌고, 하는 일 잘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하는 너무나도 보편적인 소원의 큰 줄기들이 그 비슷한 아류조차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22억 명이 다 소위 말해서 교인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마 가톨릭까지 다 합해서일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것일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간 22억 명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신 예수님의 소원과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 겁니까?
심지어 목사님들이 교회의 부흥을 원하잖아요? 예수님의 소원 속에 그게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런 식의 부흥도 없고, 교회 건축이 번지르르 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따져봅니다.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한번 따져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으로 다 함축이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딱 떠올릴 수가 없어요, 무엇을 딱 원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돼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한다는 것도 피부에 닿지 않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됨으로써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는 것이 소원이라는 것이 피부에 와 닿지를 않아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22억 명이 다 믿고 있습니다, 70억 인구 중에서 3분의 1 가량이 믿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17장 처음에서부터 계속 반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소원 속에는 어떤 연쇄적인 논리가 들어있는가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

나님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보내셨다고 믿기를 바라십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아니,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요? 이미 22억 명이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다 다른 소원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왜 예수님께 소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소원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 더 구체적으로 나 자신이 아는 것과, 그렇게 믿는 내가 아버지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 되는 것,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나에게 일어나기를 바라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먼저 그와 똑같은 말을 25절에 반복하십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세상은 아버지를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를 알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고 살았다고 그러지를 않고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 알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있어야 될 일을 지금 현재 다 이루어진 일처럼 생각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아버지를 알고 살았고 제자들과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을 알았다는 이 말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시는 건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이신데 이 땅에 보냈다는 걸 고백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감의 문제.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건 나의 현실감을 주목하시는 겁니다.

현실감이라는 게 뭡니까?

수없이 많은 사실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실들이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내 마음이 지금 현재 흘러들어가고 있는 사실만이 나의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돈 걱정을 하고 있다면,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나의 현실인데, 그게 왜 현실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돈이 없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현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흘러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켜놓고 있잖아요?

컴퓨터가 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기가 계속해서 중단 없이 흘러들어가고 있어야 컴퓨터가 켜진 상태가 유지됩니다.

TV가 켜져 있으려면 전기가 흘러들어가야 되고, 냉장고가 켜져 있으려면 전기가 흘러들어가고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에요, 수없이 많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집안에 들어가면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전등 컴퓨터 등 여러 가지 전기기구가 많은 가운데 전기 스위치를 켜서 전기가 흘러들어가는 것들만 켜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실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내 마음이 전기가 흘러가듯이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들만 내 의식 안에서 켜지는 거예요.

그 의식 안에서 켜지는 것이 바로 나의 현실이고 현실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식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식이 문제에 처해 있다는 사실 속에 내 마음이 전기가 흘러가듯 흘러들어가고 있어서 내 의식에서 그 문제가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 정치문제 경제문제 사회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문제가 날마다 언급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이 오른다, 내린다, 라고 하는 문제가 내동 뉴스에 이야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의 상황 사실에 내 마음이 흘러들어가지 않고 내 의식 세계 안에서 부동산 문제가 켜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값이 내린다고 하면 가슴이 철렁 하는 겁

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그 사실에 마음이 흘러들어가서 의식 안에서 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세상은 아버지를 몰랐지만 하나님아버지를 예수님 혼자서만 알고서 사셨다는 얘기는 유대인들 속에서 사셨다는 얘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아버지를 모르고 살았다고 하는 얘깁니다.
이게 무슨 얘깁니까?
하늘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아버지께 지금 마음이 전기가 흘러들어가듯이 흘러들어가고 있어서 예수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많은 사실들이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예수님 마음의 의식 안에 첫 번째로 켜진 현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다는 뜻이라 이겁니다.
어떤 문제가 의식 안에서 내 마음이 흘러들어가면서 켜졌을 때 우린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예수님이 살았던 방식이 다른 것은, 세상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사실들 중에서 어느 것 하나에 마음이 흘러들어가면서 그것이 우선적인 현실이 되어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지구 위의 많은 사실들이 TV처럼 냉장고처럼 널려 있지마는, 그것들에 마음이 흘러들어가서 의식 안에서 켜지를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들리지 않으시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하나님께 마음을 흘려보내시면서 아버지하나님이 언제나 마음속에 제일 먼저 켜져 계셨다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렇게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도 예수님처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많은 사실들이 TV처럼 냉장고처럼 전등처럼 있지만, 그것들을 의식하면서 마음에서 켜지 않고,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흘려 들여보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켜져 있는 상태로 이 세상을 사는 걸 말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사업 잘하는 것 소원하시지 않아요, 목회하는 목사님에게 교인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먼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사실들, 상황, 사람들을 다 제치고 첫 번째 현실로 내 마음에 켜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내 마음의 전기가 흘러들어가지 않아서 다 꺼진 상태에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

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천국만이 켜지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에 이어서 두 번째 소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다 하나가 되는 것.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걸까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아버지와 예수님, 하늘에 계신 그분들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통해서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내 마음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만 마음이 전기처럼 흘러들어가서 하나님이 딱 켜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가만히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해 흘러들어가고 계십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흘러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십니다.
안긴 채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해 흘러나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마음의 흐름을 올라타는 겁니다.
신비주의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하나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향해 흘러들어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흐름을 올라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내 마음으로 살지 않고, 왜냐하면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흘러가버렸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흘러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체의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극치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얘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기쁨.
어떻게 할 때?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올라탈 때.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대상을 종류별로 하면 크게 두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상황입니다, 사건이든 하여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이 두 대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전기가 흐르듯이.
내가 만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고 모자라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잘 생길 수도 못 생길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가난할 수도, 배웠을 수도 못 배웠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전과자일 수도 있고, 또 나는 모르지만 내가 안 보는 가운데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있으면서도 감춰져 있고 속이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염두에 두고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딱 한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만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게 되고, 피가 끓는 청년이 아름다운 아가씨를 보게 되면 나와 결혼할 수 있는 여자인가 아닌가를 보게 되는데, 그 청년이 주님의 소원을 따라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 현실로 켜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아름다운 아가씨를 보면서 내 결혼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가정파괴범으로 사형언도를 받게 된 죄수를 향해서 사회에서는 사형수로 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김 정은도 박 근혜 대통령도 하나님의 마음을 염두에 두고 대할 때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박 근혜 대통령에게 표현하는 것과 김 정은에게 표현하는 것의 표현방식이 다른 것이지, 북한에서 지금 미치광이처럼 날뛰고 있는 김정은을 향한 사랑과 박 근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열매 맺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는 하나입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마음을 따라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또, 상황도 마찬가지에요.
내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지 않는 상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주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반응할 때 그 상황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이 모르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상황을 먼저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몸이 아프다고 하면 '아유, 아파 죽겠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안 벌립니까?
'아이고, 이렇게 돈이 안 벌릴 수가 있나? 아, 정말 감사하네!'
감사가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그렇게 감사할 때에 그 상황에서 다음 단계에 넘어가게 될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타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소원의 두 가지 내용, 이 세상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마음이 흘러들어가서 켜지는 첫 번째 현실이 되는 것과, 그렇게 나의 첫 번째 현실이 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과 내게 주어진 상황을 향해 사랑과 뜻으로 흘러들어갈 때, 사람을 향하신 사랑과 상황을 향하신 뜻을 올라타서, 하나님의 사랑을 열매 맺기 위해서 사람을 대하고 감사함으로 상황을 수용하게 될 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주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얘기고, 이 소원을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나조차도 나를 향해 갖지 않는 주님만의 나를 향한 소원이 어찌 하든지 이제는 이루어지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